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입력 2024-05-15 20:31 | 수정 2024-05-20 19:46



앵커

오늘은 스승의날이죠.

그런데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다는데요.

제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지혜복 선생님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를 옮기라는 전보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 선 지 녀 님 달째입니다.

발단은 여학생 몇몇의 고민상담이었습니다.

[지혜복/교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크고 작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을 해보기도 하고 생활지도부를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잘 해결이 안됐다..."

급하게 설문을 돌렸더니 여학생 3/4이 피해 경험을 털어냈습니다.

[지혜복/교사]

"제가 교사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여태까지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학교 안의 상황도 미안하다..."

학교 측에 알려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여학생들이 누군지 알려졌습니다.

[지혜복/교사]

"그날 밤부터 인스타그램에 여학생들 저격하는 글도 올라오고 그 학급에 복도로 남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야유하고..."



40세 이상의 남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게임



과민성방광의 진짜 원인+해결방법



5년, 고생한 "이명"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반면 가해자 분리나 학부모 통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되겠다고 판단한 지 씨는 교육지원청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상급기관 조사를 통해 가해 남학생들의 서면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지 씨에게는 갑자기 전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혜복/교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제가 매우 부담스러워 떠나주기를 바랐던 것 같고요."

지 씨는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인사"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도 지 선생님에 대한 전보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학생 학부모 (음성변조)]

"(학교가) 표면적인 것만 덮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해결하고
자 노력한 선생님..."

정년을 3년 앞둔 지 씨는 끝까지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혜복/교사]

"피해 학생들도 마음이 위축되고 전보된 것도 자기들 탓인가 싶은 생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싶어요. 행복했던 아이들의 모습 이런 거 같이 교실에서 나누고 싶고."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강종수 / 영상편집: 고무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84-4000
- ▷ 이메일 mbcjebo@mbc.co.kr
- ▷ 카카오톡 @mbc제보